

I. 시작하는 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한가?”라고 물었을 때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매뉴얼인 성경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I. 중심 말씀

1. 겸손과 온유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은 겸손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2. 겸손은 이유 있는 꺾어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습과 행동이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체면이나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꺾이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은 불편합니다. 또한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꺾이는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믿음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온유는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겸손이 이유 있는 꺾임이라면 온유는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겸손은 나를 꺾는 것이지만 온유는 좀 다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을 유지한 채 단호하게 굽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칼을 빼 들었을 때 똑같이 찌르고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또한 겸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도를 나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꺾임,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영역인 겸손과 온유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321)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